

이달의 勤靜

■ 李鴻量씨 (전남지부 사무국장)………

최근 전남도 당국으로부터 전남지부 감사소증축자금으로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싱글 병글……. 그도 그럴것이 모든 사업에 정열을 기울이는李국장은 감사소 시설이나 건물도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부를 만들겠다고 기염이 대단하다.

모쪼록 熱과 誠을 다하여 전남도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기를 부탁합니다.

■ 윤영식 (본부검사 2 과장)………

평소 위트있는 유머로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드는데 명수인 윤과장이 무계를 잡고 있어 어리둥절-. 사연인즉 주위에서 똑똑하며, 이쁘다고 소문난 막내딸 윤소영양(7세)이 국민학교에 입학 했는데 벌써부터 학교에서 똑똑한 학생이라고 칭찬을 들어 거기에 발맞추려고 무계를 잡는 것이라고 허나 조사연구 부직원들은 평소의 윤과장의 멋진미소(씩소?)가 언제나 좋은 것 같다고.

■ 배기웅씨 (전북지부검사계장)………

요즈음 모든일이 일사처리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어 희색이 만면-. 사연인즉 지난 2월 원광대학원 미생물학과 석사논문 "서해안일대의 폐류와 해저벌에 대한 VIBRIO 장염균분포에 관하여"라는 연구논문이 주위사람들로부터 상당히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나서부터라고-.

어찌됐던 바쁜 업무속에서도 만학의 꿈

을 버리지 않은 배계장의 노력은 전직원들이 본받아야 될 것 같다.



■ 김정현씨 (본부사업계장)………

지난 1월23일부터 25일까지 북악파크 호텔에서 3차원전문제일즈기법 훈련을 받았다.

훈련내용은 고객관리 및 거래처 관리기술, 수급과 채권관리, QT와 자기암시에 의한 자기개발, 자기조절훈련, 제일즈기법 등 다채로운 내용이었다.

한편 김정현계장은 지난 2월 5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직원연수교육에서 전문직 제일즈 훈련, 자가기법 개발, 자기암시에 의한 자가조절, 발표력 향상 등 교습을 하여 전직원들의 자질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 문창수씨 (경북지부 사업과)………

원칠한 키에 아랑드롱 뺨치게(글썸?) 생긴 문창수씨. 그의 아내는 경북도청에 근무하던 아가씨였다. 연애시절, 퇴근 후 그녀의 커다란 가방에 자기 도시락까지 넣고 "살짝 데이트"를 했다는데……. 견협계군들이여! 장가 못가 안달난 사람이 있거든 지금 곧 문창수씨에게 전화를 하시라.

■ 이점수씨 (경북지부 서무과)………

아직도 신혼의 단꿈에 여념이 없는 그녀. 요즈음 그녀의 얼굴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상기되어 있다고 한다. 그도 그럴것이 오늘 내일 사이로 아기의 엄마가 되기 때문이다.